

LG전자, 'LG전자 캠프 동반성장 결의식' 개최

5개 분야 'LG전자 동반성장 전략' 발표·1·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체결



LG전자는 5월 12일 서울 서초R&D센터에서 구본준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과 1, 2차 협력업체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G전자 캠프 동반성장 결의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해 동반성장을 결의하는 자리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LG전자와 협력회사들간 구체적인 동반성장 실행방안을 공유하고, 1·2차 협력회사간 협력과 혁

신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본준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협력회사는 함께 1등 하기 위한 공동운명체"라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 부회장은 "이 자리를 계기로 모든 협력회사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회사로 함께 도약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이날 LG전자는 협력회사들의 '경영 역량 강화', '재무 역량 강화', '소통 및 파트너십 강화'라는 기본방향 아래 △ 경쟁력 강화 △ 차세대 기술 △ 금융지원 △ 교육·인력지원 △ 프로세스 혁신 등 세부적인 'LG전자 동반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LG전자는 협력회사의 품질, 생산성, 기술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 LG전자, 협력회사 간의 3차 협력을 통해 생산, 제조, 물류, 생산성관리시스템(PMS) 등 경영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컨소시엄'을 시작한다. 협력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동반 진출 지원과 사급 지원을 통한 원재료 확보 지원방안도 '경쟁력 강화' 부문에 포함됐다. 협력회사가 해외 진출시 건물·토지·설비투자 등 운영자금 지원을 늘리고 법률자문도 지원한다.

LG전자는 협력회사에 직접 자금지원과 혼합·간접자금 지원으로 나눠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직접자금 지원은 무이자 자금 지원 100억 원, 설비 생산성 향상 투자 415억 원 등 총 515억 원 규모를 올해 집행하고, 혼합·간접자금 지원은 상생협력펀드와 네트워크론 등 2,75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협력회사 대상 100% 현금 지급과 월 2회 대금 지급을 유지하면서, 지급 기일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해 협력회사들의 현금 유동성을 높게 된다.

협력회사 직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미 러닝센터와 평택 생산기술원에서 'LG전자 동반성장 아카데미' 과정이 올해 새롭게 개설됐고, 지방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협력회사 인적 자원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현재 구미 러닝센터에서 협력회사를 위한 100여 개의 온라인 강좌와 60여 개의 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했고, 올해만 총 2,500여 명의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수강했다.

한편, 이날 5대 추진과제 발표 이후 1·2차 협력사는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엘지전자 1·2차 협력회사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앞으로 경영진의 정기적인 협력업체 방문과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협력회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 진정한 동반성장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협력사 평가 '공정거래'로 무게중심 이동

현장평가 대신 공정거래 준수 여부 적극 반영

삼성전자는 협력사들의 평가방식을 바꾸고, 공정거래 저변 확대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그동안 기술과 품질, 대응력 등을 중심으로 협력사를 평가해왔지만, 올해부터는 1·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준수 여부에 무게를 두고 현장평가는 과감히 제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협력사들이 2·3차 업체들과 현금이나 어음 등 결제방식별로 점수를 달리하는 형식으로 시스템을 계량화해, 가산점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협력사들간 공정거래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후속 조치로, 특히 과감하게 현장평가를 제외키로 결정한 것은 협력사들이 평가단 방문 준비 등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따라 오는 8~9월 2개월에 걸쳐 '2011년 협력사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에 따라 협력사들은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평가가 좋을수록 물량 배정과 공동 기술 개발 등에 있어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측은 "협력사 평가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면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화재와 정비업체 '상생경영' 박차

영국 태참사에 해외 공동 기술연수 진행

삼성화재는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공동으로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10일 동안 영국 태참(Thatcham)사에 자동차 정비기술 관련 해외공동 기술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정비 기술 공동연수는 지난 4월 25일 체결한 삼성화재와 서울정비조합의 상생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삼성화재 보상직원 및 정비기술지원센터 연구원과 서울정비조합 운영진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영국 태참사의 기술연수 내용은 △ 사고차량 손상평가 기법 △ 친환경(하이브리드·전기 등) 차 수리기술 △ 자동차 경량차체 알루미늄 외판 판금·도장 수리기법 △ 복합재료 등 신소재 적용차량 외판수리 △ 정비공장 대고객 서비스 및 효율 등 수리품질 향상 등이다.

삼성화재와 서울정비조합은 이번 해외기술 연수 후 선진사의 기술교육 프로그램 모델과 수리기술 노하우를 국내 정비공장에 도입해 수리품질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 모델을 도입해 정비공장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는 한편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처리에 회사, 정비공장, 고객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K그룹, 동반성장펀드 2300억원 규모로 확대

SK동반성장위원회 개최·동반성장 기반 강화 일환으로 800억원 추가 출연

SK그룹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한 'SK동반성장펀드' 규모를 당초보다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SK그룹은 최근 SK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동반성장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8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전체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과 SK종합화학이 320억 원을 출연하고 이에 대한 매칭펀드로 금융기관이 참여해 480억 원을 출연하는 등 펀드 규모를 확대했다.

SK그룹이 당초 조성한 펀드는 1,500억 원 규모였으나, 추가로 800억 원을 더해 모두 2,300억 원으로 운영,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행복 동반자 경영은 SK가 천명한 경영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성과 효율성을 갖는 동반성장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동반성장펀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 30억 원, 최고 2.4%까지 이자율을 인하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SK그룹과 IBK기업은행은 지난 2009년 6월 각각 600억 원씩 모두 1,200억 원의 SK동반성장펀드를 1차로 조성한 뒤, 추가로 300억 원을 출연해 모두 1,5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 같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중소기업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1,500억 원의 펀드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모두 300여개사가 조성금액의 88%인 1,316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이만우 SK(주) 브랜드관리실장은 “SK그룹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SK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의 동반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종합화학, 협력사와 함께하는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동반성장위원회 발족·동반성장 펀드 300억원 조성

SK종합화학은 6월 3일, SK 서린빌딩에서 SK종합화학 차화엽 사장 등 SK 관계자와 협력사 CEO 30명이 모여 동반성장 공감대 형성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SK종합화학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 CEO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경영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 ‘SK종합화학 동반성장펀드’ 300억 원을 조성해 협력사들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 공정한 계약 체결 △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 불공정한 거래 사전 예방 등을 동반성장 정책의 3대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향후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차화엽 사장은 “협력사와 SK종합화학 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소통의 장이 되어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건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실질방안 마련

120억원의 상생대여금 협력업체 지원·1억원 이하 하도급대금 모두 현금 지급

SK건설이 올해 총 120억 원의 상생대여금을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한편, 1억 원 이하의 하도급 대금은 모두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SK건설은 6월 7일, 서울 중구 순화동 사옥에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행복날개협의회’ 부문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실질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이날 토목부문 15개 협력업체와 올해 첫 간담회를 연데 이어, 모두 51개 업체와 부문별 연쇄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SK건설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에 직접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생대여금’ 총액을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 120억 원으로 100%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의 현금유동성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비중을 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도 앞으로도 해외 파견 지원 및 동반성장펀드 개선 등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진철 SK건설 사업지원부장은 “협력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생대여금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현금 지급 하도급 하한선을 1억 원으로 크게 높이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실천리더 워크숍' 도 개최

포스코는 5월 18일, 포스코센터에서 2011년 제1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를 열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확산시켰다.

포스코의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에 1회씩 개최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인 박귀찬 상무를 비롯해 공정거래 유관 부서장들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이날 신입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201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공정거래 정책동향 등을 발표하고, 최근 공정거래 관련 동향과 공정거래 실천마인드 제고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귀찬 상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체질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실천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거래 실천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공정거래 준수마인드 정착을 위해 부서별·직급별 특성에 맞는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포스코패밀리 FTA(Fair Trade Academy), 공정거래 스터디 그룹 운영, 자율점검 시행 등을 통해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체질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6월 23일부터 1박2일간 충청남도 태안 소재의 이아펜션에서 '공정거래실천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회사에서 공정거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실천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법무실 김진아 변호사의 공정거래 상담사례 강의와 참석자들의 궁금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정거래지원팀에서 공정거래정책 동향과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간 분임토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교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정착화 대외협력실장은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공정거래실천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공정거래실천리더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450억원 규모 협력업체 동반성장펀드 조성

협력사에 시중 금리보다 1% 낮게 운영자금 지원

포스코건설이 총 4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를 지원한다.

포스코건설은 6월 27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윤동준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과 김경완 우리은행 부행장, 포스코건설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과 4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조성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업체 동반성장펀드 조성으로 포스코건설의 협력사들은 담보 제공 없이 시중 금리보다 1% 낮게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금 확보의 부담을 덜게 됐다. 포스코건설 윤동준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협력업체들이 동반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해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강소(強小)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중소 협력업체와의 거래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지원단’을 구성해 협력사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과 공동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의회 개최

지난해보다 발전된 2011년 동반성장 협력방안 제시

(주)한화는 6월 13일, 프라자호텔에서 ‘한화-협력회사 동반성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이날 행사에는 남영선 한화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82개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감사패 증정, 한화 대표이사·협력회사 대표 인사, 신규 회원사 위촉장 수여, 2010년 동반성장경영 실적 및 한화 중장기 계획 브리핑에 이은 만찬,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영선 대표는 “한화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한화와 협력회사간 진실한 이해와 소통에 기반한 선진적인 동반성장 추구가 필요하다”면서, 작년보다 한 단계 발전된 2011년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새롭게 강화된 협력방안은 △ 우수 협력회사에 대한 전액 현금 지급 확대 시행 △ 협력회사의 기계설비 및 원자재 확보 자금 지원 △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및 급형, 차공구류 무상지원 확대 등이다.

한화 이홍건 경영지원담당 상무는 “한화는 ‘한화-협력회사 동반성장협의회’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도전, 헌신, 정도’라는 그룹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끝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동반성장펀드 2690억원으로 확대

기업은행과 롯데동반성장펀드 2차 협약 체결



롯데그룹은 6월 17일, 소공동 롯데빌딩 대회의실에서 기업은행과 롯데동반성장펀드 규모 확대를 위한 ‘롯데동반성장펀드 2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과 조준희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통해 롯데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1,500억 원 규모로 운영해 오던 동반성장펀드를 2,69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롯데동반성장펀드는 롯데와 거래하는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로, 시중금리보다 2~2.5%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시작 6개월만인 지난 5월말에 이미 1,166억 원이 대출되면서 78%의 펀드 이용률을 기록할 정도로 협력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은 “지금까지 220여 개의 협력사가 동반성장 펀드를 이용해 자금 지원을 받았다”며 “이용률이 높아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이번에 펀드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호남석유화학, 5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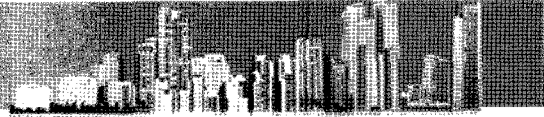
동반성장 추진사무국 구성해 다양한 협력업체 지원방안 시행

호남석유화학은 6월 30일, 중소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는 협약을 기업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상생펀드를 이용해 호남석유화학의 협력업체는 시중금리 보다 2~3% 낮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상생펀드를 활용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받게 되면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석유화학은 2008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생보증기금’을 출연하여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협력 업체에 자금운용을 직접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작년년부터 사내에 동반성장 추진사무국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 현금결제를 실시하고, 정비 지원, 제품개발 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지원 등 롯데그룹 동반성장 추진사무국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롯데마트, 업계 최초 '동반성장 사이트' 오픈

협력사와 소통채널 강화 및 동반성장 위해 오픈

롯데마트는 6월 27일, 협력사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사이트인 winwin.lottemart.com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지난 3월 1일 해당 사이트의 개발 항목과 관련해 협력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에 착수했고, 이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와 지원에 관한 기준 등을 반영해 동반성장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 동반성장제도 △ 상품 및 행사 상담 △ 소통 및 제안제도 △ 공정거래 신문고 △ 자금지원 △ 상품 제안 △ 해외판로 개척 △ 판촉행사 △ 칭찬합니다 △ 불만족합니다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협력사는 자금, 교육, 인력지원 등에 대한 신청 및 문의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소 협력사의 가장 높은 관심사인 해외 진출에 대한 상시 상담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상담실에서 서로 대면하면서 진행했던 상품 제안 및 판촉 상담도 온라인상에서 진행돼 불필요한 협력사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협력사가 현장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아울러 △ 칭찬·불만족합니다 △ 롯데마트에 바란다 △ 윤리위반 및 보복사례 신고 등을 통해 '협력사가 그 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력사와 투명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롯데마트 측은 기대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중소 협력사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부활동도 연계해 운영한다.

동반성장 사이트에 중소 협력사가 의견이나 제안, 칭찬이나 불만 등을 접수하면 사안별로 100~1000포인트를 부여하고, 이후 누적된 포인트는 어려운 이웃과 '행복나눔'을 실천하는 기부활동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강형중 롯데마트 동반성장전략팀장은 "향후 동반성장 사이트에 올려진 협력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내 동반성장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마트-신세계, 중소기업 동반성장펀드 900억원 조성

협력사 CEO급 임원 대상 '동반성장 아카데미' 진행

(주)이마트와 (주)신세계가 6월 1일부터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성장에 나섰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KB은행 및 하나은행과 동반성장펀드를 운영, 협력회사가 대출시 신용평가 금리보다 2%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는 150개 집중육성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규모 총 796억 원 내에서 개별 중소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신세계는 40개 우수 중소기업에게 총 108억 원 내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순 이마트 MD기획담당 상무는 “중소 협력회사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상생론, 네트워크론 등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금리를 바로 인하해 이자 절감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하게 됐다”며 “이번 펀드를 통해 협력사가 자금 걱정 없이 상품경쟁력을 확보해 이마트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협력회사 CEO급 임원을 상대로 1기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개최한데 이어 5월 19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마트의 동반성장 아카데미는 미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회사 경영진의 실질적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상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마트가 기존 실무진 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협력사 CEO급 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2기 아카데미에는 1기 30개사보다 배가 늘어난 총 60여 개 협력회사 임원이 참석했다.

주요 강의 내용은 대표이사 간담회와 윤리경영 강의, 고광수 락앤락 영업상무의 ‘중소기업 Lock&Lock 세계시장 성공 사례 등의 강연 등이었다.

또한 이장우 브랜드 마케팅그룹 대표의 ‘21세기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의 ‘디자인 경영’, 김중태 IT문화원 원장의 ‘모바일 혁명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등 전문가 강연도 함께 진행했다.

최병렬 이마트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마트 바이어가 물량을 받기 위해 달려가서 사정할 정도로 고객을 위한 최고의 상품을 협력회사에 부탁한다”면서 “최고의 상품을 위한 최고의 판로 보장과 지원을 이마트는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 중소 협력업체 ‘동반성장 다짐대회’ 개최

납품업체 성공사례 공유 등 여름 성수기 앞두고 전략적 연대 강화 결의



오비맥주는 맥주 원재료와 포장재 납품업체, 물류업체 등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초청해 5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경기도 이천공장에서 ‘오비맥주·협력업체 동반성장 다짐대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1박2일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경영전략과 품질 혁신방안 등을 공유한 뒤, 맥주업체의 상생발전

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맥주 수요가 급증하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시장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맥주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 파트너로서 전략적 연대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오비맥주에 병과 캔 등을 납품하는 (주)테크팩솔루션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종전에 비해 유리병을 경량화했더니 비용도 절감되고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소개한 뒤 “병과 캔의 중간 형태인 ‘보틀캔’을 맥주제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오비맥주 측에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 오비맥주는 우수 협력업체 포상을 위한 평가모델과 여름 성수기 경영전략, 품질관리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협력업체와의 수평적 의사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협력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 방안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비맥주 이호림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오비맥주와 협력업체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내수와 수출 모든 면에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에도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해 함께 성공신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국내 부품업체 해외진출 활로 적극 지원

국내 부품업체 해외진출 위한 수출지원조직 운영·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및 확대

한국지엠주식회사는 6월 4일, 협력사와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국내 부품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지엠은 국내 부품업체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부품수출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이 곳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국내 부품업체의 해외 진출 및 수출 문의를 지원하며, 개별 접근이 어려운 GM 그룹의 부품 바이어와 1:1 상담을 주선하는 등 국내 부품업체를 GM 그룹내 관계 조직에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GM 글로벌 사업장에 국내 부품업체 소개를 위해 진행해온 해외 부품 전시 및 상담회의 개최국과 횡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존 중국, 미국, 독일, 러시아 등 5개국에서 진행된 부품 전시 및 상담회는 향후 태국, 브라질, 이집트 등이 포함돼 개최국이 추가 확대되며, 각 전시회당 상담횟수도 기존 평균 150회에서 200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한국지엠이 추진하는 국내 부품업체와의 동반성장은 부품업체 품질교육 확대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국과 FTA 체결 또는 발효국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태국, 브라질,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가들에 위치한 각 GM글로벌 사업장의 현지 부품사와 업무 제휴 및 합작투자를 통해 국내 부품업체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구매부문 엠 벤카트람(M Venkatram) 부사장은 "경쟁력이 우수한 한국 부품업체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면 무역과 투자가 증가해 GM과 협력업체 모두 지속 성장을 꾀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지엠의 지원과 협력사들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국내 부품업체들이 러시아, 중국, 인도,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호주 등 한국지엠 혹은 GM이 진출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ww.gm.com



CJ제일제당 · 농협, 농산물 MOU 체결

농산물 원료 제공과 생산 인프라 활용에서부터 가공식품 해외 진출까지 상생

CJ제일제당과 농협중앙회가 원료 수급부터 농산물 가공 식품 해외 진출까지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와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는 6월 27일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회관에서 '사업 확대 및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양 측은 농산물 원료 제공과 생산 인프라 활용부터 농산물 가공식품의 해외 진출까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CJ제일제당은 양질의 우리 농산물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고, 농협 측도 각 지역 농협 조직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CJ 측이 9월 준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 쌀가공 시설에서 생산되는 쌀가공 식품을 농협과 협력관계를 통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고, CJ의 글로벌 영업 조직을 활용해 농협의 홍삼 브랜드 '한삼인' 등의 해외 진출도 실현되게 됐다. CJ 측은 향후 지역 단위 농협 조직과도 추가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철하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식품기업과 농촌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이 우리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 38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조성

기업은행 · 경남은행과 협약식 체결해 협력업체 자금 지원 활성화

STX조선해양은 6월 28일, STX조선해양 진해조선해양기지에서 신상호 STX조선해양 사장, 유상정 기업은행 부행장, 정호상 경남은행 본부장, 박종대 STX 멤버스 회장(DST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 38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조성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STX조선해양이 190억 원, 기업은행이 120억 원, 경남은행이 70억 원을 각각 출연해 조성된 이번 동반성장펀드는, 앞으로 기업은행이 240억 원, 경남은행이 14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 조성으로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는 기준금리보다 1.9~2.5%포인트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STX조선해양의 추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동반성장펀드에 참여한 기업은행은 지난 2005년 STX와 함께 협력업체의 납품실적을 근거로 연간 납품금액의 6분의 1 이내에서 운영자금을 낮은 대출이자로 지원해 주는 '네트워크 론'을 조성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경남지역에 기반을 둔 경남은행이 펀드 조성에 참여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경남권 기업들의 대출 신청이 한층 용이해졌다.



두산건설, 동반성장 위해 역량 강화 교육

협력사 직원 60여명에 노무·회계·건설법 강의

두산건설은 6월 29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두산건설 협력사 실무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이 협력사 실무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협력사 직원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법률관계 및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등을 비롯한 노무관리 전반,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체계 이해, 일반회계 기초 및 건설현장에서의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관리를 포함한 건설회계기초의 이해 등을 주제로 건설업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과 함께 두산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협력사 임직원 건강검진지원’과 ‘위탁 정보 통보시스템구축’ 등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제도와 주요 동반성장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두산건설 측은 이날 협력사 실무진에게 “건설업 전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진정한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기술력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411억원 규모 동반성장 금융지원 특별펀드 조성

산업은행과 동반성장펀드 조성·100% 현금결제 등 본격적인 동반성장 시동

대우조선해양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협력업체 지원 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시작했다.

대우조선해양은 6월 30일, 산업은행과 411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동반성장 금융지원 특별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특별펀드는 대우조선해양이 258억 원, 산업은행이 153억 원을 각각 출연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산업은행은 협력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이번 펀드 조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는 기준금리보다 2%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돼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의 추천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기간은 기존 거래의 유무에 따라 1개월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했다.

또한 산업은행 전 영업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업체에 100% 현금결제와 대금지급을 월 2회에서 3회로 늘려 협력업체의 재무건전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KT, 새로운 동반성장 추진방향 밝혀

협력사에 KT 보유특허 약 1000건 무상양도 및 제품 개발 지원



KT는 7월 6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포럼 회원, 벤처단체장 및 IT업계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 도약'을 주제로 제11회 IT CEO 포럼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포럼에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모델을 한층 강화시킨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KT는 거래실적이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1,000건의 보유특허를 무상양도해 특허를 활용한 수준 높은 서비스·제품의 개발을 지원하며, KT로부터 라이선스, 기술 전수 등 기술 이전을 받는 업체에는 동반성장 가점을 부여해 향후 구매 확대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의 자금운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도금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8월부터 이를 시행에 옮긴다. 기존의 기성금이나 분할금 제도에 추가해 성격상 중간진척도 확인이 어려워 중간대가 지급이 여의치 않았던 소프트웨어 용역이나 일반용역 등에 적용될 계획이다.

KT는 아울러 1·2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효과 확대와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하도급 계약시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계약 금액의 80%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도급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KT는 이외에도 가시적 동반성장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단순한 협력 모델을 넘어 '협력 파트너와 KT의 공동기획'에 의한 동반성장 성공모델을 추진한다. 즉, 기획단계에서부터 파트너의 역량과 KT의 기획, 마케팅, R&D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에릭슨은 KT의 한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요청에 기반해 KT 협력사 중 우수 협력사를 선발, 에릭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에릭슨은 현재 기술협력 분야의 우수 협력사 선정과정을 진행 중이며, 올해 내로 글로벌 진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지난 해 7월, 3불(不) 선언("중소기업의 자원이 KT로 인해 낭비되지 않게 하고, 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가로채지 않으며, 중소기업과 경쟁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다")을 통해 '상생'의 패러다임을 '동반성장'으로 전환하고, 시장 확대 및 새로운 IT 생태계 조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